

「공주 대학로 특화거리 조성 활성화 방안」 의정토론회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10. 29.(금), 14:00
- 장 소 : 기적의도서관 다목적 강당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좌 장 : 최 훈 의원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의정토론회 진행 안내

토론회 개요

- 주 제 : 공주 대학로 특화거리 조성 활성화 방안
- 일 시 : 2021. 10. 29.(금), 14:00 ~
- 장 소 : 공주 기적의도서관 다목적 강당(지하 1층)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좌 장 : 최 훈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토론회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등 록 (10분) : 13:50 ~ 14:00			
개 회 식 (20분)			
14:00~14:05	(5분)	개 회 및 국 민 의 례	수석전문위원
14:05~14:20	(15분)	참석자 소개, 개회사	최 훈 의원
토 론 회 (100분)			
14:20~14:40	(20분)	주 제 발 표 (도시경쟁력과 특화가로디자인 충남)	이석현 교수
14:40~15:40	(60분)	지 정 토 론	토론자 6명 (각 10분 내외)
15:40~16:00	(20분)	자 유 토 론	토론회 참여자 전체
정리 및 폐회 (5분) : 16:00 ~ 16:05			

개 회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 훈 입니다.

높고 청명한 하늘과 상쾌한 바람이 느껴지는 이 좋은 가을에, 여러분을 모시고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이석현 교수님, 토론자로 와주신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님, 공주시 윤석봉 도시정책과장님,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박 신 팀장님, 충남연구원 박혜은 박사님, 강북발전협의회 윤경태 위원장님, 공주대학교 이귀연 학생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시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과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관계 공무원 및 공주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정토론회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 공주’의 「대학로 특화거리 조성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및 관계자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더욱 나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학로’라고 하면 야외 공연과 공원이 있는 예술적 장소이며, 패션의 거리를 떠올립니다. 또한 학생들이 즐겨 찾는 카페와 맛집, 길거리 음식과 같은 먹거리 등이 함께하는 젊음의 거리를 상상합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학로의 특성에 백제문화와 역사의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공주만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하여 공주시민과 함께 학생들이 공주의 문화와 역사를 쉽게 접하고, 대학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특별히 현장에서, 그리고 실무로 근무하시는 분들과 지역주민 및 지역 학생을 모시고,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특화거리 조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양한 토론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주변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제가 꿈꾸고, 모든 시민이 희망하는 대학교 주변의 상권 활성화와 대학로 특화거리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 참가해 주신 우리 일곱 분의 전문가 여러분, 공주시민과 충남도민의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가 모여 조화롭게 어우러져 최적의 정책 제안으로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10월 29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최 훈

목 차

1부 주 제 발 표

- 도시경쟁력과 특화가로디자인 충남 1
이석현 교수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학부 실내환경디자인전공)

2부 지 정 토 론

- 대학로의 특화거리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견인 35
- 임달희 의원 (공주시의회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공주 대학가 활성화 방안 모색 41
- 윤석봉 과장 (공주시 도시정책과)
- 공주 대학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관관리 방안 49
- 박혜은 박사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전임책임연구원)
- 공주 대학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제언 57
- 윤경태 위원장 (강북발전협의회 위원장, 지역주민 대표)
- 공주에서의 학생의 삶 61
- 이귀연 학생 (공주대학교, 지역학생 대표)
- 공주대 대학로 특화거리 조성 활성화 방안 제언 69
- 박 신 팀장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장)

주 제 발 표



**도시경쟁력과
특화가로디자인 충남**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학부
실내환경디자인전공
이석현 교수

공감의 도시 창조적 디자인

도시경쟁력과 특화가로디자인

중앙대학교 이석현

도시성장 최대의 난관

지속가능성

도시 가치의 시대

“우리는 도시는 만들어 왔지만
도시의 문화는 만들지 않았다”

가치와 공존의 도시재생

물질적 개발에서 가치공유의 개발로
공동체 회복
문화적 융합

공통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공리적 도시의 재생

Development → Design

기능주의
양적팽창
개발주의
물리적 환경

어메니티
커뮤니티
지속가능성
문화적 가치

도시의 다양성 창조성











도시 공간디자인의 매력

장소의
정체성

공간구성의
조화성

커뮤니티와
문화공생

CITY BARCELONA, SPAIN



CITY BOLOGNA, ITALIA





그곳에만 있는 특별함

공간의 체험과 공감 / 장소의 일상

대학로 특화가로

장소의
정체성

다양성
창조성

젊음의
프로그램

가로공간 활성화 요인

평가 측면	세부 요소
물리 환경	주변 경관 영향 / 개성적인 장소 / 합리적 재생수법 공간의 구성 / 경관의 조화
공간 보완	재생 공간 인지도 / 지역 영향력 / 역사적 분위기 역사성 보존 / 재생 정도
시설 이용	대중교통 접근성 / 안내사인 배치 / 휴식 장소 공간 위생 정도 / 편의 시설
경제 개선	수익 상승 / 일자리 창출 / 외부 투자 유치 주변 경제 활성화 / 유동 인구 증가
사회 문화	문화 행사 빈도 / 문화 행사 규모 / 이벤트 정보 커뮤니티 형성 / 행정 기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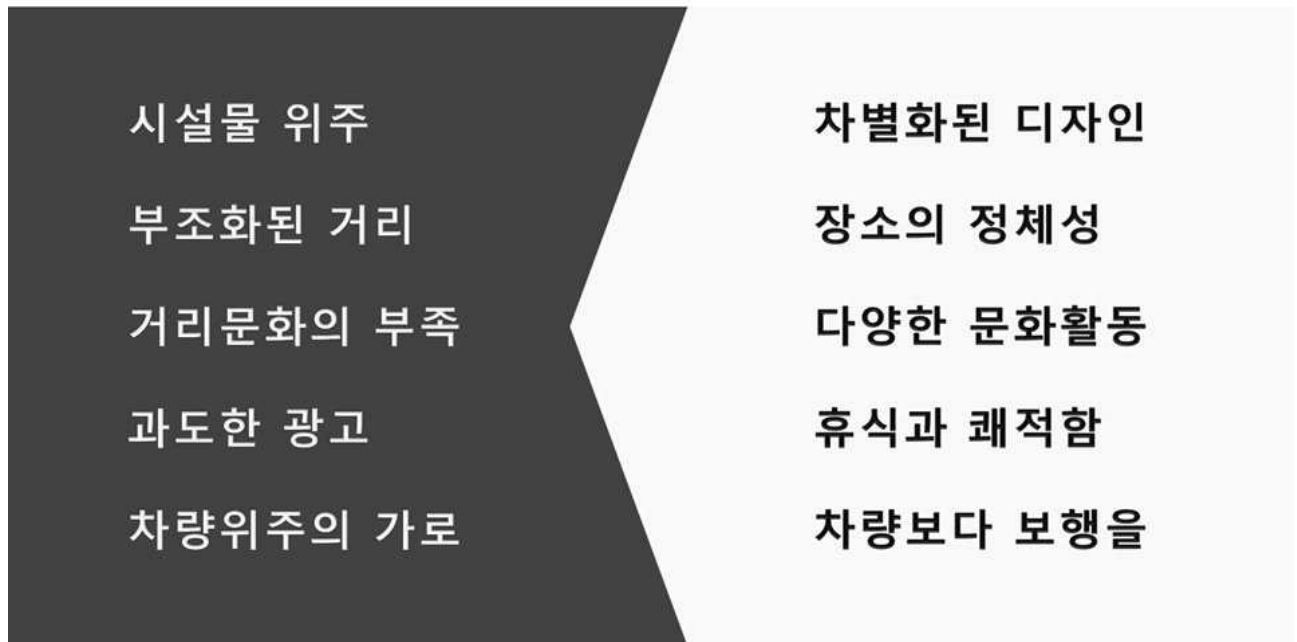
연세로 시간당 보행자 수 추이



연세로 상권 매출 추이 단위: 원



잘되는 가로와 안되는 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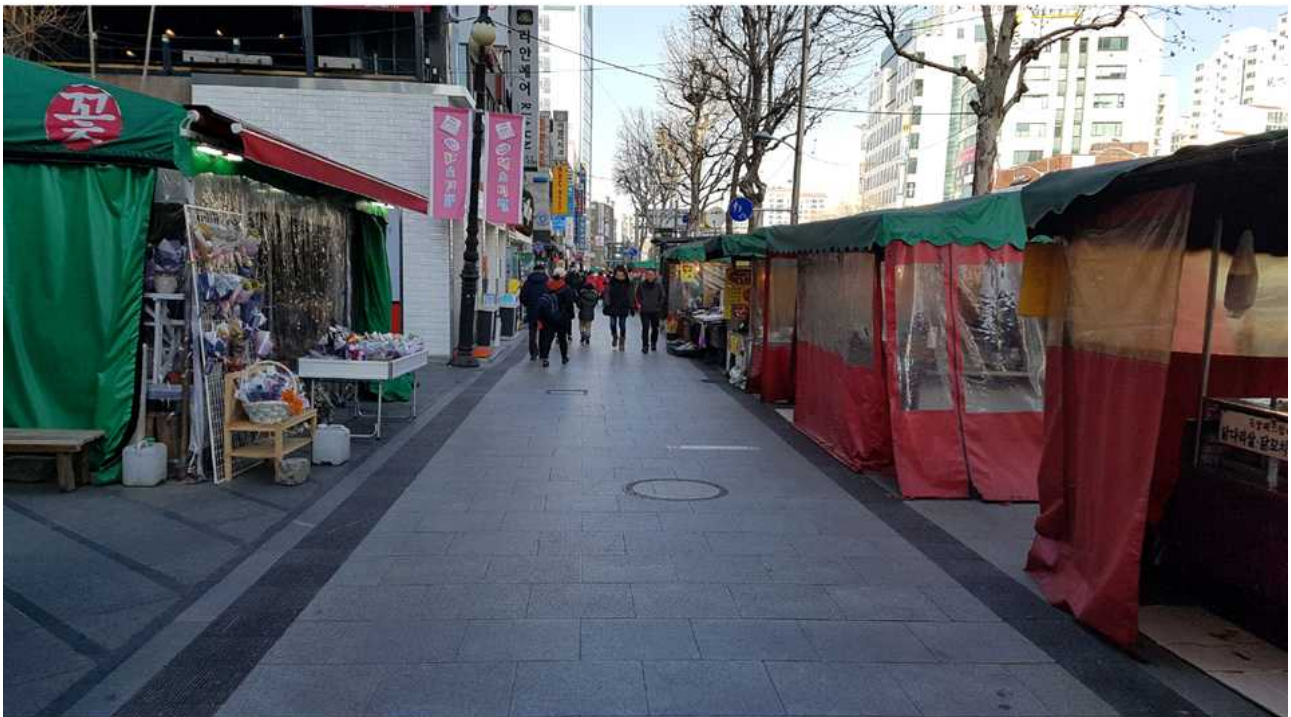


장소의 지속가능한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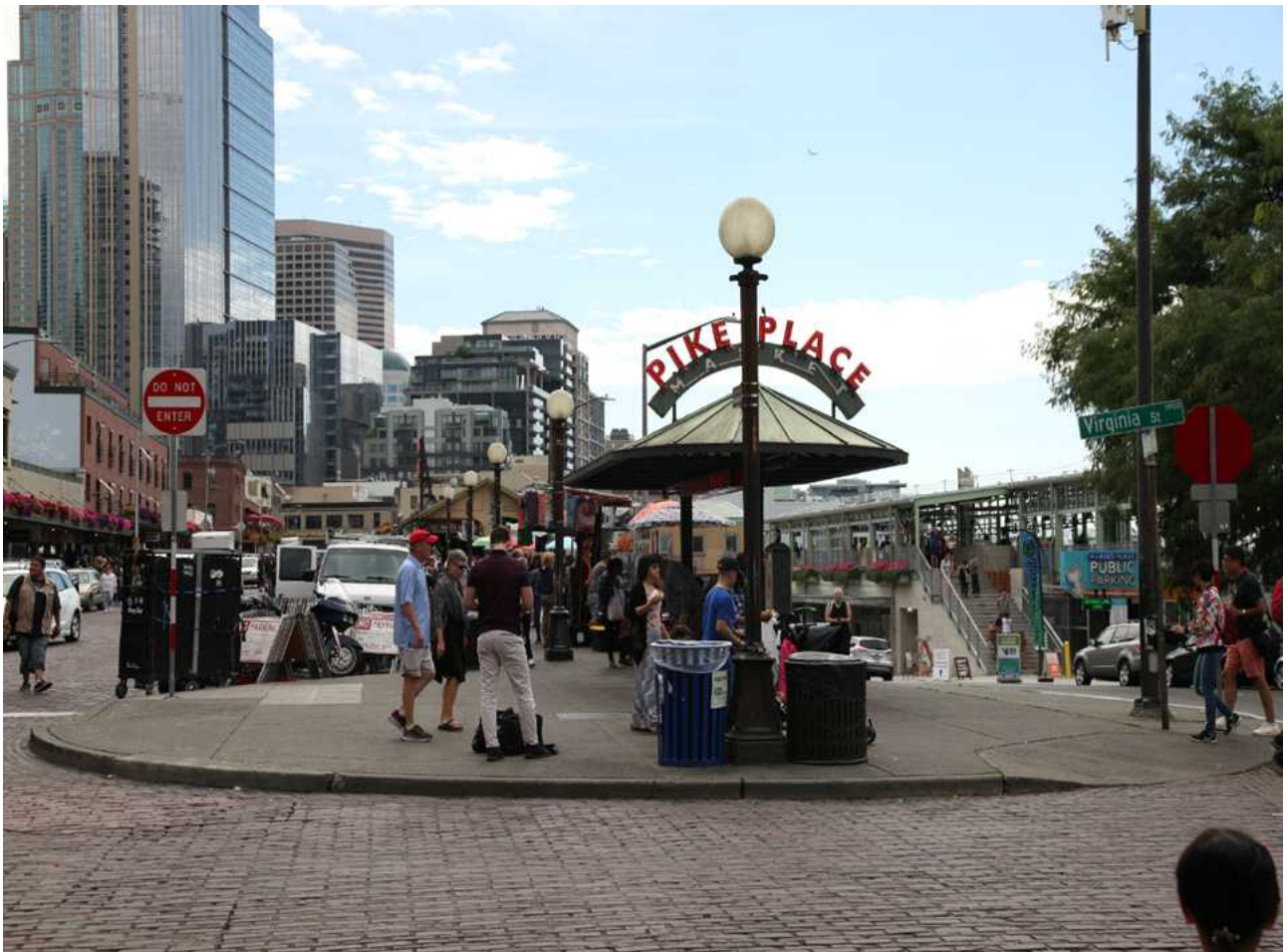






편안한 휴식공간





문화공간과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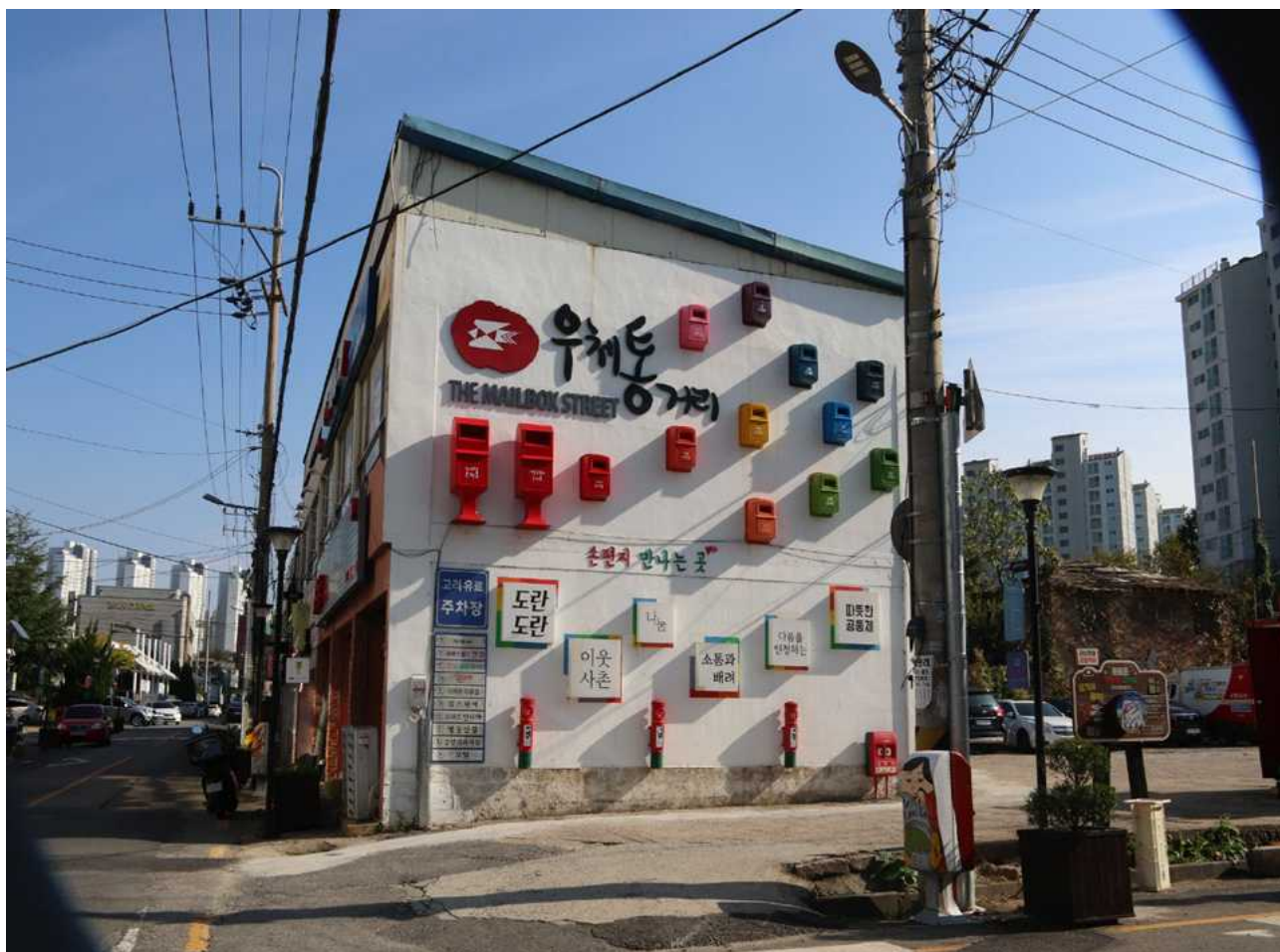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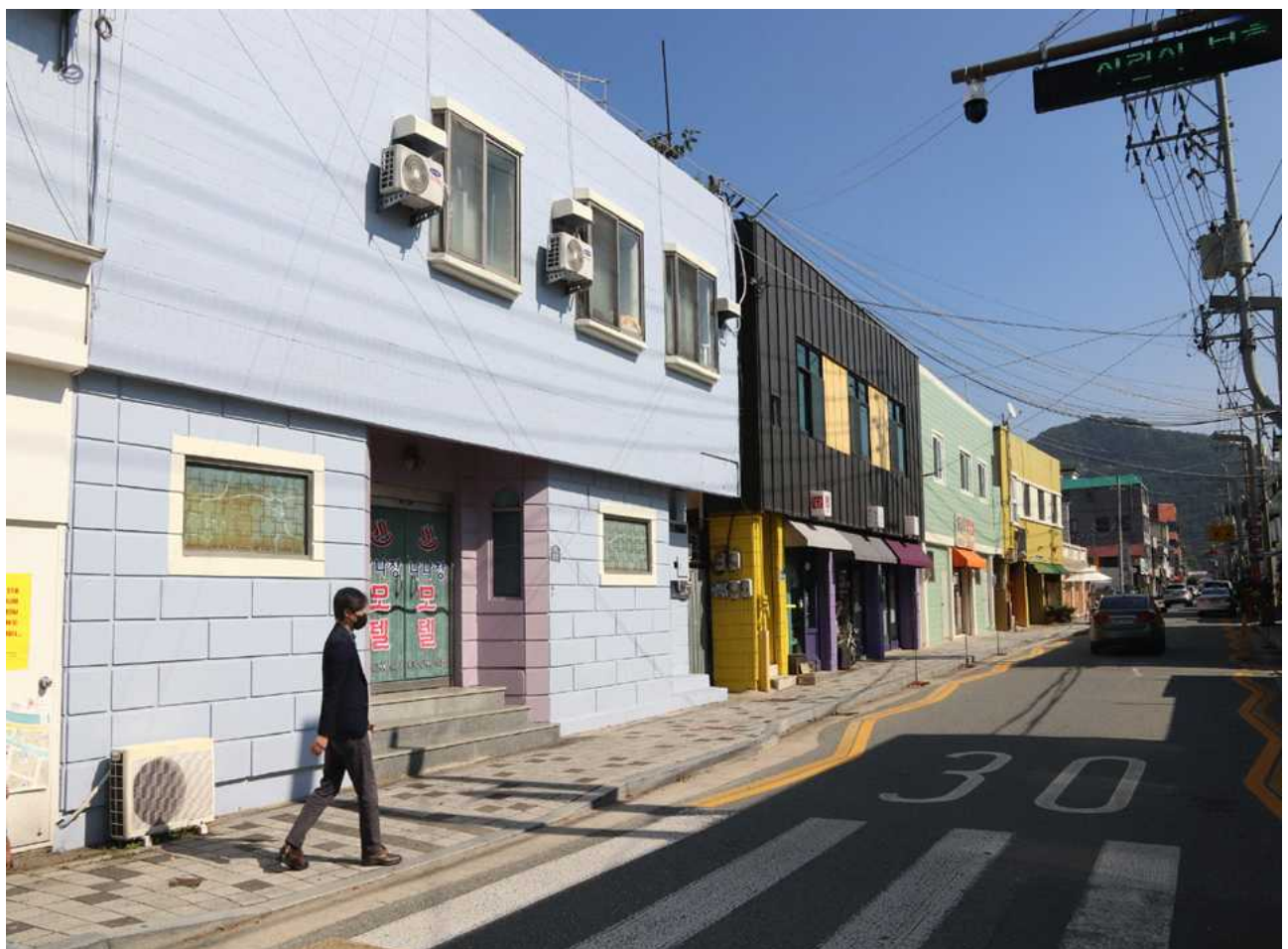
개성적인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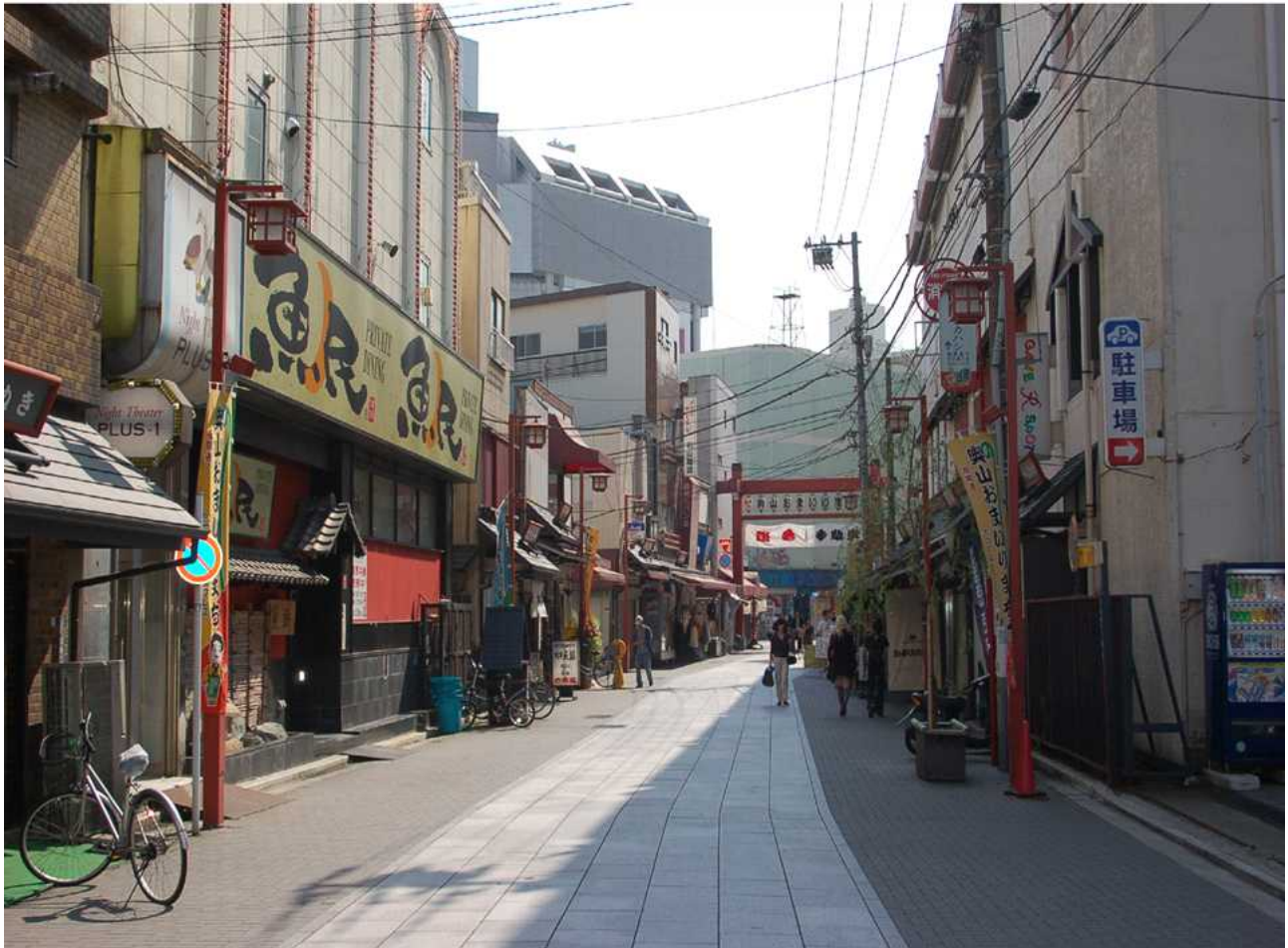




화도 간판 워크숍











도시의 새로운 가치 창조

GREAT HERITAGE



**대학로의 특화거리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견인**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

대학로의 특화거리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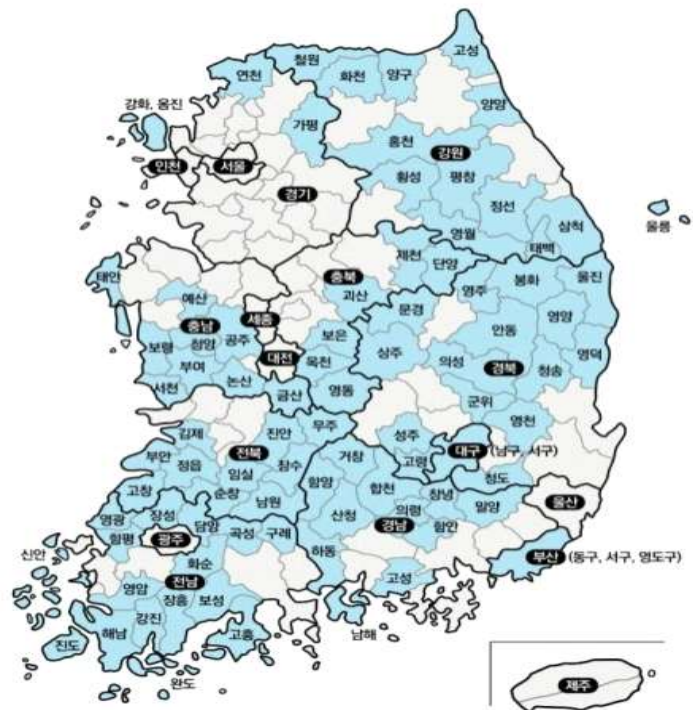
임 달 회 위원장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및 시행령을 근거로 정부는 인구감소 소멸위기 지역 89곳을 지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남과 경북은 두드러지게 인구감소가 많은 지역이며 또한 인구절벽으로는 수도권이 안정적이지 아닐까 생각했던 수도권 중 일부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되어 인구감소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태로 자리잡고 있음을 느끼면서 도시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대책을 세워야 하겠구나라고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구감소 소멸 위기 지역 89곳 중 공주도 예외는 될 수 없으며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은 더욱 공주시의 인구감소를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의 감소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출산, 육아 중심의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지만 가시적인 효과성은 좀처럼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임신과 출산으로 인구를 증대시키는 것보다는 생각을 전환하여 찾아가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기존의 도시 모습을 재리모델링하여 찾아가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힐링이 되는 도시로 탈바꿈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도시인구 증대의 효과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연관하여 고민 해 볼 때 인구감소는 곧 학령인구 감소와 연계되며 학생들은 지방의 대학보다는 수도권의 도시를 선호하는 현 실정에서 「공주대학로 특화거리 조성 활성화 방안 마련」은 우리 공주시가 비록 인



구감소 소멸위기 지역 89곳 안에 들어가 있지만 위기가 곧 기회가 되듯이 우선은 대학로 주변을 지금의 모습에서 탈바꿈하여 경제 활성화와 도시인구 증대 뿐 아니라 현재 고3 학생들이 다른 지역 대학으로 가기보다는 이왕이면 우리 지역대학 입학권장하는 좋은 기회의 발판으로 삼는 것도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공주대학교는 1948년에 개교한 충청남도의 유일의 국립종합대학으로 그 대학 주변을 중심으로 대학로의 특화거리 조성 활성화는 어쩌면 우리가 진작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공주시의 인구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전부터 많은 시민들이나 특히 공주대학생들이 대학주변에 놀곳, 갈곳, 젊은 층을 겨냥한 먹거리 뿐 아니라 문화예술을 건전하게 즐길 수 없어서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제는 고교시절의 틀에 박혀있다가 자유와 청춘의 상징인 대학생으로서 충분히 누려야 할 아름다운 공간과 시간을 이제부터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시급히 우리 기존 세대들이 미래를 장식할 우리 청춘들에게 당연히 마련해 줘야 할 과제로 이제서야 부각되고 고민의 시간이 마련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의원으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저는 의원 생활을 하기 이전부터 조그마한 사업을 해 본 공주 토박이의 한 주민으로서 공주대 근방의 경제활성화를 고민해 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민해 보았던 저의 생각과 주변 대학생뿐 아니라 몇몇의 시민분들과의 소토론을 통해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해 보겠습니다.

1. 차량이 없는 일부 거리 조성

가게 앞 주차로 인해 좁은 공간을 차량이 이동하게 됨으로서 인도가 침범받게 되며 그 결과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늦은 저녁에는 음주 후 도보시에는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운전자와 이동하는 사람들을 안전도보를 위해 차량이 없는 일부 거리 조성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배달하는 이륜차 이외에는 차량 출입을 금하고 사람이 다니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확보가 시급하며 주차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곽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또는 현재 공주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차단한 공주대 주차방법을 학



생도 보호하고 시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도 필요한 것으로 제안 해 봅니다.

2. 문화예술 공간마련 및 쇼핑센터의 특화거리 조성

타 지역대학(이화여자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등)의 대학로를 가보면 대학정문 가기 전까지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이 즐비되어 학생뿐 아니라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주대학로는 단지 음주의 거리로만 인식되어 있어 젊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다양한 승화방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타지역의 대학로에 가보면 학생이나 시민들이 만든 작품이나 일일 프리마켓 등을 펼침으로서 자연스럽게 외국인뿐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까지도 소소한 구매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용돈이 부족한 학생들이 인터넷보다 저렴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가게가 없어 대부분 대전, 유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쇼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마련과 인터넷보다 더 저렴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패션품들이 구비되어 역으로 세종, 대전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공주 대학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대학로를 계획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 힐링공간 및 경관조명 특화거리 조성

기나긴 코로나 19의 잔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심신의 피로를 호소합니다. 나름의 각자 위치에서 받는 일상생활속에서의 스트레스에 연이어 감염병으로 인한 장기전으로 번아웃되어 있지만 진작 이것들을 호소하고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적공간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테마별 공원이나 분수대 등 힐링공간조성으로 공주대학로가 한편으로는 치유의 대학로가 되길 기원 해 봅니다.

4. 다양한 먹거리 조성을 위한 일일 상주 푸드트럭 공간 마련

‘곳간에서 인심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배가 부를 때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가 생긴다는 말인데 즉 그만큼 먹거리가 예나 지금이나 관심중의 최고가 먹거리였다. 미각도 날로 발달하고 메뉴도 매일 매일 개발되는 만큼 상주된 가게로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미각을 자극할 수 없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일 푸드트럭

상주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할 듯 합니다.

자칫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 둔치공원의 일부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여 제안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이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보았으나 이는 지역사회주민의 의견 및 예산도 함께 고려해야 문제로서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공주대학로 특화거리 조성 활성화로 국한하여 생각할 문제도 아닌 것 같으며, 이는 그만큼 대학로의 협소한 공간을 가지고 학생 및 시민들의 욕구를 다 반영할 수 없으므로 대학로 중심으로 하되 대학로 그 이상까지 공간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즉 공주가 노후화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탈바꿈하여 공주시가 나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도시, 교육도시라는 자원과 특성들을 적재적소 재배치함으로서 역동적인 젊음의 도시로 전환하여 살아 숨쉬는 늘 축제 같고 늘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공주시민의 바램이며 또한 저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공주대학로를 위해 더 나아가 공주시를 위해 서울이나 부산 등의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해보실 것을 제안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주 대학가 활성화 방안 모색

공주시 도시정책과
윤석봉 과장

공주 대학가 활성화 방안 모색

윤 석 봉 과장
공주시 도시정책과

□ 공주 대학가 활성화의 필요성

공주시 신관동은 일신역(日新驛)이 있어 일신(日新) 또는 관동(官洞)이라 하였다가 일신의 ‘신’과 관동의 ‘관’을 합하여 신관이라 하였습니다. 신관동은 공주시 강북의 신도심으로 조성된 법정동이자 행정동으로 면적은 9.09km²이며, 2021년 8월 31일 현재 총 9,256세대에 19,378명(남 9,429명, 여 9,949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공주종합버스터미널·변영로·공주대학로 일대에는 상가들이 대거 밀집되어 있고, 공주대학교 부근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는 공주 신관동에 위치하며, 5개 단과대학과 국제학부에 약 7천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주변으로 공주대 후문에서 신관초교차로 구간의 공주대학로, KB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변영로, 소광장에서 주공4단지 구간의 흑수골길이 주요대학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등 기반시설의 미정비와 대학생이 많이 찾는 시설에 대한 인프라 부족으로 대학가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주민과 대학생이 실망스러워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특징 없는 가로환경, 학생들의 활동 공간 부족, 부족한 주차장, 보행 공간 부족 등은 대학가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또한 인근 세종시의 출범과 더불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공주시에서는 ‘공주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하여 침체해 가는 신관동,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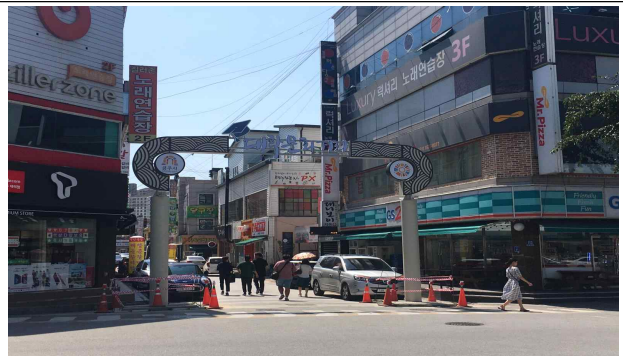
□ 공주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공주시의 사업추진 현황

먼저 2020년까지 완료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면, 18년도에는 공주대 후문을 중심으로 ‘공주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가로환경 정비, 보행환경 개선, 주차환경 개선, 공주대학교 옹벽구조물 개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변영1로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상징게이트 2개소를 설치하여 거리의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투박한 기존 아스팔트 포장면을 공주시 로고를 응용한 도막형 바닥포장으로 개선하고, 특징 없는 공주대 옹벽구조물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또한 대학문화거리내에 있는 소공원(신관동 639-1번지)을 정비

하여 공연시설 확충과 편의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공주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18년 완료)



대학문화거리 상징게이트 설치('18년 완료)



대학문화거리 공원정비('18년 완료)



대학로 역사문화거리('18년 완료)

19년도에는 공주대학로의 과도한 옥외광고물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문화거리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181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가로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업소별 개성 있는 간판디자인으로 가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이 창출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간판개선 사업('19년 완료)



간판개선 사업('19년 완료)

20년도에는 신관프라자 앞 무질서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공간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활동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효용성이 없는 공간을 버스킹, 문화행사,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 이 공간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에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활동거점 조성('20년 완료)



공주대학교 활동거점 조성('20년 완료)

또한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8년도 매산동길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19년도 번영2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20년도 흑수골길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대학로 주변 원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범죄예방대상 수상('18년 완료)



매산동길 범죄예방디자인('18년 완료)



번영2로 범죄예방디자인('19년 완료)



흑수골길 범죄예방디자인('20년 완료)

21년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공주의 대표 진입관문인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주변에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거리와 육교를 활용한 고마전망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낙후되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숙박 골목을 특색있는 테마거리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와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웅진백제 보물길열기사업('21년 시행)



전막별빛 휴테마거리조성사업('21 시행)

□ 공주 대학가 활성화의 한계

대학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주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문화거리조성사업 중 주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차없는 거리와 일방통행로 지정을 추진하였지만 주변 상가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로 활동거점으로 조성한 소광장은 학생들이 자유로이 활용하도록 만든 공간이나 소음 발생 등으로 일부 상인의 반대로 인해 자유로운 버스킹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공주 대학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 공주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제안

공주시에는 대학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지만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단발적인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대학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정책과의 도시경관 분야, 도로과의 도로정비 및 개설 분야, 교통과의 주차장 확보 분야와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등에 관련된 타 실과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공주 대학가 마스터 플랜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이후 각 실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공주대학교 및 학생, 지역주민과 상인 등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주시는 기반시설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가의 활성화는 자유로운 버스킹 공연, 프리마켓, 소규모 전시회, 거리예술제 등 문화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주민과 학생이 함께 만들고 나눌 수 있는 상생모델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토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가박스가 위치한 흑수골길(소광장~진빌딩)을 시에서는 차없는 거리 또는 일방통행로로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고, 주민과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면 대학가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 공원이나 소광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생과 주민이 화합하는 장, 이곳에서 큰 축제만이 아니라 소소한 축제가 일상으로 열리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대학가 곳곳을 테마가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여 대학가만의 테마거리를 연출하여 낭만이 넘치고 활기찬 대학가로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학생과 주민이 나와 너가 아닌 우리가 되어 쾌적한 경관조성으로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주변 상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면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공주 대학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경관관리 방안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전임책임연구원
박혜은 박사

공주 대학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관관리 방안

박혜은 박사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전임책임연구원

□ 지역·가로 활성화와 경관, 디자인

- 인구감소, 고령화, 경기침체, 기반시설의 노후화, 상업기능 쇠퇴, 구도심 공동화 등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
- 경관, 디자인 관련 사업은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 용이, 지역의 정체성 형성 기여
- 정체성,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에 활기를 부여할 수 있는 수단
- 경관법상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 정의
- 건물, 시설물, 공원, 수목, 강, 산, 거주민의 생활 및 관습, 문화 등 유무형적인 것 ⇨ 지역의 정체성 형성
- 관·민의 역할과 책임 중요

□ 경관협정의 활성화

- 주민의 생활 자체가 경관(생활경관), 즉 사적영역까지 포함
- 상가 밀집지역의 점주, 건물주의 디자인의식은 가로경관 형성에 중요
- 수원시 거북시장길 경관협정 사례 주목할 필요
: 2012년에 점주, 건물주, 지역주민이 경관협정 체결하여 현재까지 유지
: ①옥외광고물, 건축물 의장, 건축설비 등에 대한 디자인 통일성 확보,
②보행로 및 도로 이용 용이, ③화단 설치 및 관리,
④임대료 상한제 등의 내용으로 협정 체결, 유지
- 공주 터미널 주변 상가지역에서 추진중
- 공주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디자인 요소 개발
- 경관협정 체결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업종 변경 시 경관협정 체결 내용 적용
- 쾌적하고 조화로운 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



〈수원시 거북시장길의 경관협정사업 시행 전(위)과 시행 후(아래)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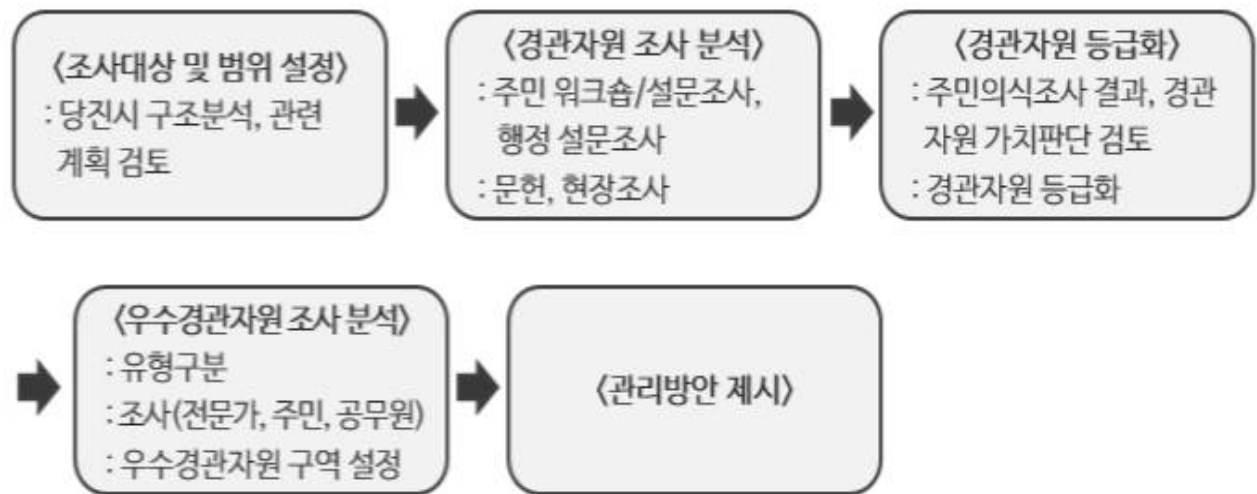


□ 강남지역과의 연계, 이를 위한 거점공간 정비

- 금강을 중심으로 강북은 신도심, 강남은 원도심으로 단절
- 공주시 인구 약 10만 명, 공주대학교 학생이 약 1만 7천 명
- 강남은 공산성, 무령왕릉, 전통시장, 제민천, 공주 제일교회 등 역사, 문화자원이 풍부
- 강남 관광객을 강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 확보
-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안전성 확보를 통한 이용자 이동 편의성 향상
- 강남과 강북의 보행 및 자전거 이동이 편리하게 보행공간, 쉼터 개선
- 금강 보행교 및 시외버스터미널 공간환경 개선 시급
- 터미널 주변을 정보, 휴식, 공주시 정체성 부여를 위한 경관개선

□ 경관기록화 사업 추진

- 경관에 대한 인식확대와 경관자원의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관기록화 사업 추진 필요
- 시대에 따른 사회상이 반영된 경관 변화 과정 파악 가능
- 생성된 자료는 사료 및 지역 정체성 보존의 의미와 경관관리의 기초자료 확보하는 수단
- 조사 대상의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문헌 발췌, 기사 검색, 주민 의견 반영하여 입체적인 특징 도출
- 해당 지역을 홍보하는 대표상징물로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지역 마케팅 가능 (경관기록집, 전시회, 홈페이지 운영 등)
- 연속적이고 주기적인 기록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여 경관관리가 가능
- 경관형성 과정과 가치 기록을 통해 지역의 경관관리에 활용, 거주민 및 방문객에게 경관의 가치인식 확산
- 역사 문화적 가치 및 생태적 가치 등 경관적 가치가 있는 대상의 경우 주변 지역의 경관관리 방향 파악 가능
- 경관사업 또는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제안 가능
- 충남에서는 최초로 당진시에서 2019년에 경관자원 조사 진행
: 붙임자료 참고(당진시 경관자원조사 보고서, 2019)



1	왜목마을(왜목항, 마리나) +석문산, 장고항 등	13	신리성지 +버그내순례길
2	서해대교	14	버그내순례길 +버그내순례길 위 자원(솔뫼성지, 함덕시장 등)
3	솔뫼성지	15	석문방조제
4	아미산 +다불산, 몽산성, 면천진달래축제 등	16	함덕제 +함덕수리민속박물관, 농어촌테마파크, 수변공원 등
5	기지사줄다리기 축제(및 박물관) +당진 국수봉 당제 <-----	17	삼선산 수목원
6	면천읍성 +면천은행나무(및 면천두견주:무형) <-----	18	당진시청
7	함덕성당 +함덕성당 느티나무	19	면천은행나무(및 면천두견주)
8	난지도(난지도해수욕장) +소난지도 <-----	20	소난지도
9	삼교천(및 삼교호관광지) +삼교천1,2(함덕읍), 삼교천(우강면)	21	남산공원
10	당진천 벚꽃길 +주변 구릉지	22	영탑사
11	아미미술관	23	당산 저수지 생태공원
12	행담도	24	당진 국수봉 당제

<우수경관자원 그룹화 목록>

경관사업 대상지 제안

우수경관자원 및 관리가 필요한 자원화 잠재지역 도출



경관사업 대상지 제안 및 경관체험 콘텐츠로 연계

당진시 경관시책 반영 검토 및 실행여건 확보

당진시에 분포되어 있는 우수한 경관자원 발굴
경관자원의 우수성 검증
경관사업을 통해 자원의 관리, 브랜딩 및 관광콘텐츠 활용
지속적 우수한 경관자원의 가치향상

경관관련지구 지정 제안

경관자원 및 조망 등이 우수한 지역 도출



시화읍입구지역의 [조망권 경관지구] 지정 제안
지미칠수리역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부조, 경지, 일출

경관자원조사 데이터의 당진시 도시관리계획 활용
경관관련지구 지정시 경관자원조사결과 검토, 반영

우수경관자원 관련지구 지정 추가제안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를 통한 용도지구 지정

기 지정 경관관련지구 외에 우수한 경관을 가진 대상지 추가
경관관련지구 지정으로 제도적 차원의 관리 제안
경관자원조사 DB 활용을 통해 신규 대상지역 검토

2019 당진시 시민경관발굴단 시범 운영

4월 시민 경관자원 발굴단 모집



당진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발굴단 참여 모집

시민 경관자원 발굴단 활동 시작

5월 8일 1차 교육



시민발굴단 소개 및 카메라와 사진 촬영 기법 교육

5월 22일 2차 교육



직접한 경관사진 촬영을 위한 방법 교육 및 실습

6월 21일 특강

당진시 해양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양 경관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강의

경관자원 사진 온라인 품평회

시민 발굴단이 촬영한 경관자원 사진 제출

8월 12일

제출된 경관사진을 인터넷 카페
'당진시 경관자원 시발/발굴단'에 업로드
및 품평으로 경관자원에 관한 의견 공유와
경관자원 재발굴

8월 23일

경관자원 사진 선정

경관자원 사진 전시회를 위한
경관자원 사진 선정

9월 24일 경관자원 사진 오프라인 품평회
경관자원 사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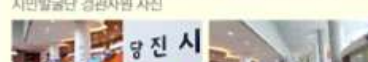
경관자원 사진 전시회



10월 23일

시민발굴단 경관자원 사진

10월 29일



시민 경관자원 발굴단 활동 마무리



당진시 경관사진 전시회 사진

2019 당진시 시민경관발굴단 시범운영 주요일정



공주 대학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제언

지역주민 대표
강북발전협의회
윤경태 위원장

MEMO



공주에서의 청년 삶

지역학생 대표
공주대학교 법학과
이귀연 학생

공주에서의 청년 삶

이귀연 학생

지역학생 대표, 공주대학교 법학과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회 「공주 대학로 특화거리 조성 활성화 방안 마련을 의정토론회」에 지역학생 대표로 나온 이귀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모두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주에서의 청년 삶’이며, 총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공주시의 현 상황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 브리핑을 열어 “충남 서천군,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등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19~34살의 인구 대비 순이동자 수 비율),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산출해 선정되는 자료입니다. 저는 공주시가 청년 순이동률에 주목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공주시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통계청에서 제공한 연도별 청년(20~39세) 인구 추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5세계급 별(1)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계	계	계	계
	인구 (명)	인구 (명)	인구 (명)	인구 (명)	인구 (명)
합계	111,261	109,931	108,432	107,581	106,474
20~24세	7,228	7,250	7,123	6,966	6,649
25~29세	5,663	5,508	5,453	5,408	5,394
30~34세	5,752	5,290	4,913	4,672	4,568
35~39세	6,184	6,147	5,953	5,913	5,546

<공주시 연도별 청년(20~39세) 인구 추이>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주의 청년 인구 감소는 매우 심각합니다. 대학이 위치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현상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 예시로 인접 지역인 청주만 보더라도 청년(20~39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제시된 표는 통계청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연령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인구수 (명)	총인구수 (명)	총인구수 (명)	총인구수 (명)	총인구수 (명)
20세	10,791	11,165	11,858	12,243	12,431
21세	11,158	11,837	12,283	12,391	12,429
22세	11,803	12,285	12,447	12,447	12,441
23세	12,143	12,487	12,464	12,436	12,386
24세	12,496	12,597	12,462	12,393	11,868
25세	12,612	12,599	12,377	11,856	10,884
26세	12,686	12,460	11,859	10,852	10,659
27세	12,467	11,923	10,844	10,739	10,806
28세	11,939	10,866	10,659	10,785	10,575
29세	10,843	10,712	10,766	10,725	10,930
30세	10,720	10,764	10,627	10,941	11,230
31세	10,782	10,669	10,911	11,261	11,641
32세	10,710	10,893	11,167	11,655	12,735
33세	10,877	11,246	11,571	12,749	14,219
34세	11,238	11,507	12,619	14,209	13,912
35세	11,577	12,705	14,155	13,882	13,712
36세	12,755	14,101	13,790	13,701	13,803
37세	14,157	13,772	13,692	13,722	12,078
38세	13,776	13,684	13,539	12,032	13,069
39세	13,753	13,555	11,960	13,018	12,958
계	239,283	241,827	242,050	244,037	244,766

〈청주시 청년(20~39세) 인구 및 증감률〉

이와 관련하여 저는 공주시의 청년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공주에 거주 중인 공주대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의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들이 주소지를 공주시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주시에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혹시 공주 문화거리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술집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술도 문화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대학생생활 하는 내내 했던 문화생활이 읍주 밖에 없다면 암담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대학생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주 문화거리에 가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들이 소위 문화거리라는데 와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술집 거리 구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양하고 질 좋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해야 하는 성장기에 놓인 아이들에게 정말 최악의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있는 거라고는 자그마한 영화관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그 영화관마저도 너무 작아서 상영 가능한 영화의 종류의 영화가 타 지역 영화관과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적고, 상영하는 영화들마저도 상영 가능한 시간대가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제한된 문화생활은 공주의 청년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입시가 끝나고 문화생활에 기대를 한껏 품었던 대학생들에게는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 없으니 공주시와 붙어있는 세종시, 청주시 혹은 대전에 가서 대신 문화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래 있던 주소지에서 옮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주시의 청년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생활은 청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점을 의원께서는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리되지 않는 불법행위입니다. 공주 문화거리를 비롯한 신관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조폭들과 폭주족들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이들은 19시 이후부터 더 활발히 활동을 합니다. 조폭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며 떼로 모여 다니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과속을 하며 난폭 운전을 하고 불법주차를 하는 등 시민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서슴치 않습니다. 다음은 폭주족입니다. 배달 일을 하는 이들 역시 좁은 공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오토바이의 머플러(마후라)를 불법 개조하여 일부로 큰 배기음을 내어 주변의 시민 거주자들을 매우 불쾌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행동은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 그리고 제46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매일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릅니다. 의원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러한 불법행위는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쾌함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도시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의원께서 이러한 상황을 지금 아셨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시설물 관리입니다. 제가 공주에 와서 실망한 점은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공주대학교 후문 주변에는 신호등도 없고 있는 신호등마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당연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많은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제1항을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시민에게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은 안전을 거주지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시정 해주셔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보 및 자전거 도로의 문제입니다. 혹시 의원께서는 공주대 후문 주변을 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주대 후문을 비롯한 신관동의 도로 상태는 정말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을 정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노인들이 다니는 만큼 신호등 문제와 함께 해결안을 마련해 주셔야 공주시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계신 차 소유주 분들은 모두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텐데요, 공주의 공영주차장은 노후가 심하고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아 주차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교통은 많이 혼잡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공영주차장이 골목 사이에 있는 등 위치 파악이 어려워 접근성 좋지 않아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활용되지 못하는 금강의 문제입니다. 금강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4대강 중 하나인 한강의 경우, 청소를 비롯한 관리가 잘되어있고 공원 조성 등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거부감이 들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반면 같은 4대강인 금강은 한강과는 거리가 멀게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한강의 환경을 기대하고 금강을 가면 실망감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는 모두 길이 손상되어 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원처럼 보이는 터는 쓰레기가 난무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공원이 아닌 활용되지 못하는 공터로 보입니다. 이는 4대강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며 그 위상 또한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금강이 한강을 모티브로 하여 공원 조성을 새롭게 하고 훼손된 도로의 복구와 청소를 제안하는 바이며, 곧 ‘위드 코로나’의 시행으로 일상생활이 복구되는데 공주시가 이에 맞춰서 알맞은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빼앗긴 일상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금강의 현상으로는 이러한 시민들의 바람을 이루어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자나 잔디 광장의 확보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 사업의 개선이 그것들입니다. 금강의 정자 수는 많이 부족하며 잔디 광장 또한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강에서 대여해주는 자전거는 모두 녹슬어 있고 고장이 나서 자전거를 타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보호 장비 대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한다면 미래의 금강은 한강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할 것이며 그로 인한 청년 인구수 증가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주시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과 공주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토론회나 포럼을 더 자주 개최하여 좀 더 살기 좋은 공주를 함께 만들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주대 대학로 특화거리 조성
활성화 방안 제언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박 신 팀장

공주대 대학로 특화거리 조성 활성화 방안 제언

박 신 팀장

충남도청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 들어가면서

1990년대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특화거리조성사업은 그간 2008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의 거리30곳에 공공디자인을 도입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시작으로 서울거리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더불어 중앙부처에서는 국토부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문체부 공공디자인시범사업 공모사업으로 여러 지자체가 시범공모사업으로 인한 골목상권 활성화 및 도시정체성,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특화거리에서 답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내사례를 참고하여 공주시는 지역의 인구감소 상황에서 도시 위기를 공동 문제로 인식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음으로써 상호 간에 상생을 위한 새로운 협력모델로 추진하여 대학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및 청년들이 지역과 도시에 매력을 느끼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이를 극복할 새로운 변화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서 공주대 주변대학로의 ‘역사문화·예술이 융합된 특화거리 조성의 필요성과 지역상인 및 대학생들에게 “역사문화가 담긴 특화거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성공적인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1) 디자인특화거리 사례

국내에 잘 조성된 특화거리로는 서울 삼청동 문화거리, 인사동 가로수길, 군산 근대문화거리, 부산 광복로 문화 패션거리, 영도 문화의 거리, 포항 중앙로상가거리, 대구 김광석 특화거리,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등이 있습니다.

서울 삼청동 문화거리 : 현재 삼청동길은 팔판동 삼거리에서 삼청공원까지 약 900m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가로로 화랑과 갤러리샵, 특색 있는 음식점 등이 들어서면서 서울의 대표 문화의 거리가 됐다. 가로는 유기적인 도로선형을 유지하고 있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차로 폭은 7m, 보도폭은 약 2m이다.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 삼청동길 주변으로는 3층 이하의 낮은 건축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옥을 개조한 상가, 단독주택을 개조한 상가, 신축상가 등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삼청동길에 면하고 있는

상업시설의 주요 용도는 소규모 상점(의류, 잡화 등) 카페, 음식점, 갤러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한옥을 개조한 상가가 많은 것이 삼청동길의 주요 특징이며, 주로 카페 및 음식점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로등 및 볼라드 등 대부분의 가로 시설물이 서울 표준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은 상품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개성 있는 간판, 한옥과 잘 어울리는 글디자인이 특징적이다.

광복로 문화 패션거리: 부산시청의 이전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부산 중구의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게 됐다. 전국 최초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실시, 옛 부산시청(현 롯데백화점) 앞에서 약 1km 구간에 난립해 있는 간판을 일제히 정비하고, 가로등과 보도블록, 벤치 등 공공시설물까지 토털 디자인 개념으로 재구성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부산중구청이 나서 광복로입구~국제시장(거리 750m, 폭 15m), PIFF존 쇼핑몰~부산극장 4관(거리 240m, 폭 15m)간 가로에 정비사업을 약 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실시했다. 이곳은 사업대상지를 거리의 모양, 인근지역과의 관계, 상점의 형태 및 방문자의 행위에 기초해 Zone A(광복로 입구~(구)미화당), Zone B((구)미화당~국제시장), Zone C(PIFF 광장)로 구분해 구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크게 간판개선, 도로정비, 조경시설, 가로시설물 등의 4가지 사업으로 구분해 조성했으며, 간판개선 사업에서는 간판의 수를 원칙적으로 업소당 가로형 또는 세로형과 돌출형 간판 1개씩만 허용하고, 원색 사용을 최대한 억제했다. 뿐만 아니라, 간판의 규격은 가로형의 경우 가로는 건물의 폭 이내로, 세로는 유리가 가리지 않는 범위 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세로형은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층의 상하간격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로 각각 제한했다.

도로정비 사업에서는 6m인 도로의 폭을 3.6m의 곡선도로로 조정해 차량의 속도를 완화시켜 보행안전성을 확보하고 넓어진 보도에 조경공간 및 수공간 등을 설치했다. 조경시설에서는 넓어진 보도를 이용해 계절별로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는 꽃나무 등으로 18개의 쌈지공원, 5개의 광장, 미적 감각이 뛰어난 조형물 4개를 조성해 시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했다.

가로시설물에서는 가로등과 조명은 전체적인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도로 및 공간 성격별로 주조색을 선정해 조형성과 야간경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와

색채를 도입했다. 무엇보다 주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시범가로추진단과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가는 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성공적인 특화거리로 갈 수 있는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군산근대화거리: 군산 근대사 여행은 근대문화유산거리가 조성된 해망로 일대에서 시작한다. 예전에 이곳의 지명은 장미동이었다. 장미(藏米)는 '쌀을 저장하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일제는 군산항을 호남 지역에서 수탈한 곡물을 본국으로 실어가기 위한 거점으로 삼았다.

근대화 거리는 낡은 스냅 사진속 모습처럼 낯설지만 고풍스러운 풍경이 있는 곳이다. 일제 식민지 시절 조성된 근대문화 역사 건물의 거점공간은 히로쓰 가옥 ~ 구조선미곡 창고 ~ 구 군산세관 ~ 이성당 빵집, 영화 촬영명소 초원사진관, 경암동 철길마을, 동국사 등이 있다

◆이성당빵집(우리나라 최초의빵집)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어린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빵집

◆히로쓰가옥

일본의 가옥형태와 생활모습을 볼 수 있는 곳

◆(구)군산세관본관

대한제국때 지어진 국내에 현존하고 있는 서양고전주의 3대 건축물중의 하나

◆동국사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일본식 사찰 중 유일하게 남은 곳 우리나라 절과 달리 처마에 장식이 없고, 대웅전과 요사채가 실내 복도로 이어져 있는 게 특징이다

◆초원사진관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로 유명한 곳

포항 중앙로 상가 특화거리:포항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쇠퇴되기 시작한 중앙로 거리에 200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참여와 공공환경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 약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행자전용가로를 조성했다. 특히, 환경적 요소로 중앙로 실개천을 조성하고 벤치, 인공폭포, 가로등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함께 중앙로축제 등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포항 중앙상가 실개천거리를 사후면세점 거리로 선포하면서, 외국인이 3만원이상 물건구매 후 출국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점포로 변화를 꾀했다. 앞서 경북도, 포항시, 포항중앙상가상인회는

지난 5월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중앙상가 실개천의 66개 점포를 사후면세점으로 등록했다.

이곳에는 포항의 이미지를 살린 TAX FREE 사인물을 설치했고 사후면세점 환급 창구 운영사업자 협조를 받아 사후면세 단말기 무료설치를 지원했다. 또한 포항시는 사후면세점거리 홍보리플릿 제작, 포항불빛축제 등에서 홍보, 사후면세점거리 상인대상 외국어 매뉴얼을 지원한다.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포항 중앙상가 상인회는 정기예술공연, K-smile 캠페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3회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 동안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후면세점 거리를 찾아 본격적으로 쇼핑을 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 창조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사례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 ‘1913송정역시장’:

창조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100년 역사의 전통시장을 새롭게 창조경제시장으로 개장 현대차그룹 지원, ‘봉평장 프로젝트’ 현대카드 노하우, 광주창조센터 협업 합작품 역사와 전통에 ‘디자인·문화·ICT’ 등 융합, ‘지키기 위한 변화’가 기본 방향성 최고 번영기 70~80년대 모습 복원, 점포 연도석 및 대형시계 랜드마크 설치 청년상인 17곳 입점, 팝업형 ‘누구나 점포’, ‘토요 야시장’ 등 신규 아이템 도입 ICT 접목해 점포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 모바일 앱 등 구축해 접근성 강화 인근 KTX역과 연계, 국내 첫 역사 외부 전광판 시장 내 설치해 ‘제2의 대합실’ 역할 영업 및 점포 관리 노하우 전수, 서민 중심의 창조적 경쟁력 갖추도록 지원

3) 특화거리조성 실천적수법

①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전국적으로 지방도시 개발이 정체기와 저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심쇠퇴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곧 도심지역의 상주인구와 유동인구의 감소, 공공시설의 이전, 도시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지역 상권의 상업활동 저하와 활력 감소 및 공점포 증가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에 골목상권을 잠식당한 소상공인의 아우성은 하루도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은 자신들의 상권을 거대 자본 유통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도심의 오래된 전통 상권을 보호하고 영세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화 상권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절실하다. 일정 지역에서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20개 이

상 또는 집단화된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거리 중 요건을 갖춘 곳을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② 경관협정에 의한 경관사업

경관협정사업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므로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공공의 행정적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업을 성공할 수 있으려면 상가 또는 지역이 가진 정체성을 협정이라는 제도 내에서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이는 커뮤니티의 회복, 더 나아가 지역 발전 모델로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관리하는 제도로써, 일정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이 경관형성을 위해 전원합의하에 체결하는 협정이다. 법적근거로는 경관법 제19조~제25조('13.8.6.공포, ' 14.2.7.시행. 전부개정안)를 시행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경관협정 및 경관협정을 매개로 한 자발적 참여 유도 이며, 경관협정서에 담겨질 내용으로는 목적, 대상위치, 체결내용, 유효기간, 협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이다.

경관협정 체결주체는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체결자로 본다.

그리고 경관협정에 포함될 내용은 건축물 의장, 색채 및 옥외광고물,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역사, 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경관협정 운영회의에서는 경관협정서 작성 및 관리와 경관협정 절차는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 ⇒ 협정서 작성, 인가신청 ⇒ 경관위원회 심의 ⇒ 경관협정 인가, 공고 ⇒ 경관협정 발효 ⇒ 경관협정 변경 및 폐지 순이다.

그리고 국,도비 연계 공모사업으로는

③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공모사업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④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 및 민간전문가활용지원사업

지역 전체 공간환경에 대한 디자인 개선 및 활성화 전략 등 수립(2억원 지원), 전략계획 수립 후 중점추진권역을 추가설정하여 공간계획 수립(1억원 지원), 전략계획에서 도출된 공공건축물 또는 공공공간 사업에 대한 건축기획(0.5억원 지원), 지원 사업이다.

⑤ 문화거리조성 및 문화특화지역조성 공모사업

문화적 인재양성으로 지역민주도형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지역의 문화적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소프트웨어사업과 기 추진 중인 하드웨어 사업이 결합되어 원도심재생사업의 균형 마련을 위한 사업

⑥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공모사업

공공디자인진흥법 시행 및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실행에 따라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시범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지자체 협력 구조의 공공디자인의 장기적 발전 토대 마련

⑦ 간판개선 공모사업

간판개선사업은 낡고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는 노후 불량간판을 지역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

⑧ 충청도청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 경관협정 공모사업

15개시군 대상으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진흥등의 관한조례 및 경관조례에 의한 공공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 경관협정공모사업 추진 등

⑨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공모는 ‘지역단체 협업’, ‘상생협약 체결’, ‘대학협업 사업’은 각각 10개소씩, ‘고객센터 설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개소를 선정해 총 33개 골목상권을 지원.

■ 마무리 하면서

공주대주변 특화거리조성 활성화 방안의 목적은 지역상인 및 대학생들이 사는 커뮤니티를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장소를 창조하는 것으로 그간 공주대 대학로 지역특화정책으로 인해 장소성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대학로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대별로 조사 분석하고 또한 대학로 주변지역의 형성과정과 토지이용 특성에 관한 시대별로 조사 분석하여 대학로 지역의 특화나 건축물 용도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여 대학로 지역특화정책으로 인한 공간적 변화와 함께 지역의 핵심적인 용도가 이들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대학로 일대를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공주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를 적용한 특화거리조성으로 지역민, 대학생, 행정,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가칭 ‘공주대 대학로 위원회’”를 발족하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이 필요하나,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집중점토회의”라는 실천적인 수법이라 할 수 있다.

집중점토회의란 도시설계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1~3일 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집중점토회의는 설계가와 각계 각 층의 참여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개발시키고 테스트를 하게 된다. 이 때 다양한 가능성과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도록 디자인과정(사전조사가 시행되고, 수 차례의 회의과정이 필요) 즉 설계과정을 좀 더 개방시켜야 한다.

이번 의정토론회를 계기로 대학로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의견들을 구체화하면서 대학로 주변 활성화를 위한 실증적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는 일체의 과정을 토론과 합의를 거쳐 주민주도로 진행하여 향후 “주민주도 집중점토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은 앞으로 진행될 공주대 주변 대학로 활성화를 위한 목표로 삼고, “주민들의 의견에 기초한 이 의견들을 구체화하여 국, 도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활성화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제언【디자인(설계)방법】

공주대 주변대학로 특화거리활성화 디자인(설계)방법은 아주 명료하다.
1. 대상지가 가진 장점들을 찾아내어 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2. 대상지가 가진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화거리 활성화 설계방안 모색하기
3. 지역주민 및 대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접목시키기

MEMO